

“나이는 숫자일 뿐”... 78세 영화인의 끝없는 도전

컬처 & 피플

문화영성연구소

김동호

문공부 7급공무원으로 시작
 영화인들과 50~60년 술마시며 인맥 쌓아
 부산국제영화제 성공 이끈 뒤
 76세에 단편영화 감독 데뷔
 화가... 저술가...하고싶은 일 너무 많아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김동호(78) 위원장은 문화융성을 국정기지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행하고 있다. 하얀 눈썹이 인상적인 김 위원장은 ‘위원장’ 칭호와 인연이 깊다. 또다른 직함은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이다. 최근 지역 문화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그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한 뒤 15년을 이끌어오면서 세계적인 영화페스티벌로 만든 대표적인 문화계 인사다. 그가 76세이던 지난 2013년 감독한 24분 짜리 단편영화(JURY)에 국민배우 안성기, 강수연이 군발 없이 출연할 정도로 문화계 인맥이 탄탄하다.

그가 영화계와 인연을 맺은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이 우연은 영화진흥공사 사장, 영화심의위원장, 예술의 전당 사장,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으로 이어져 자신의 인생을 특징짓는 필연이 됐다.

“서울대 법대시절 형편이 어려워 직장을 구하는 데 가장 먼저 공채시험을 치른 곳이 문공부(현 문화부)였죠. 첫 직장이 다른 곳이었다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 지 모릅니다. 문공부 기획관리실장을 8년 했는데, 장차관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라 차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영화진흥공사(영화진흥위원회 전신) 사장 자리가 비어서 간 것 뿐이에요. 영화계와 인연의 시작이죠.”

김 위원장은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필연이 될 수 있도록 일에 열매에 도전했고, 창의적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서울법대를 나와 7급 공무원으로 문공부에 들어가 줄곧 기획부서에서 밤낮없이 일했다고 한다.

영화계와 인연은 ‘인생 2막’에 해당한다. 영화진흥공사 사장 재임 시절에는 국제 영화제에 우리 영화와 영화인을 소개하는 데 모두를 걸었다. 임권택·김기덕 감독, 배우 강수연씨 등과 동행해 해외 영화계 인사들을 만나고 영화제에 참석하는 것은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영화계 인사들과 돈독한 인연은 그때 시작됐다. 만남과 술은 실과 비늘이었다. 그의 거친 표현대로라면 “50~60년 기랑 찢다”

김 위원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는 분신과 다름없는 것이지만, 그 창설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마지막 공직인 영화심의위원장을 그만둔 ‘백수시절’에 일면식도 없는 부산지역 영화인들이 찾아와서 영화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진심이 느껴져서” 부산에 내려갔다. 지인들은 “패가 망신할 일 있냐”고 길을 막아섰다. 그는 “하도 반대가 심하니가 오기가 생겼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럴 수록 보람듯이 성공시켜 보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김 위원장의 리더로서 욕심과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는 철저한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신봉자다. 정부, 지자체가 문화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김 위원장의 신념도 같다. “정치적인 간섭은 창작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조직의 자율을 해친다.”

그가 부산영화제를 창설하고 15회 행사를 치르는 동안 행사 개막식에서 대통령, 장·차관,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인사말을 하지 못했다. 내빈으로 소개된 정치인도 없다. 그 전통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불문율이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0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서 현역



물러났다. 모든 사람들이 퇴진을 말하거나 시기를 늦춰달라고 간청했다. 물러설 때를 예전부터 살펴온 그의 생각은 굳건했다. “내려올 때를 잘못 택하면 사람이 추해진다.” 우리 나이로 올해 78세. 그의 나이와 미래를 연관짓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비로소 ‘우연’이 아니라 선택한 길을 가고 있다. 2013년 단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것은 지금까지 준비해온 인생 3막의 첫번째 카드였다.

“뭐니 뭐니 해도 영화제에서는 감독이 꽃이에요. 감독으로 레드 카펫을 밟아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은 7년 전부터 준비해왔죠. 단편영화를 하나 더 찍고, 장편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고픈 생각은 변한 없습니다.”

살아서 나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그는 또 꿈을 꾸고 있다. 화가는 오래 가슴에 품어온 소망이다.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서재에는 미술관련 서적(화집 포함)만해도 1000권이 넘는다. 해외 영화제 가면 빠짐없이 인근 미술관을 찾았다. 영화 ‘올드보이’의 박찬욱 감독은 “해외 영화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려면 그 지역 유명 미술관에 가면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영화감독, 화가, 저술가로서 인생 3막을 꿈꾸고 있다. 그의 말처럼 “인생 후반부가 도전과 시도로 끝날 수 있지만”, 끝까지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는 한 마에스트로의 삶을 지켜보는 것 만으로도 감동이 될 것 같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남승진 교수(동아인재대 건축학과)는 마치 데이트 약속을 앞둔 사람처럼 마음이 설렌다. 지난 2007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CNS 윈드 앙상블’의 정기연습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창설된 CNS(Classic aNd Swing) 윈드 앙상블은 취미로 관악기를 연주하는 아마추어 관악 오케스트라단으로 회사원, 교수, 주부, 초등학교생이 대부분이다. 45명의 회원 가운데 관악을 전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열정만큼은 프로페셔널 못지 않다. 창립멤버인 남 교수는 20년 전 일본 유학시절 ‘소리’가 좋아서 트

서구문화센터에 월 임대료를 내고 연습실을 빌릴 계획도 세웠지만 최근 학교 측의 배려로 간신히 교내에 연습공간을 얻었다. 두 달 전 지인으로부터 전남대 대 동아리의 ‘딱한 사정’을 듣는 순간 지난해 취재차 방문했던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 떠올랐다. 평일 낮인데도 시민예술촌 스튜디오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연극연습을 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시민예술촌은 1993년 다이와 방적공장이 이전하면서 철거위기에 처했던 공장과 부지(9.7ha)를 가나자와시가 매입해 시민들의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다. 예술가들

시민예술가를 모셔라

럼뭍을 불기 시작했다. 매주 한차례 회원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진다. 학교와 집을 오가는 그의 ‘단조로웠던’ 일상은 CNS 윈드 앙상블과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새롭고 즐겁다.

하지만, 지난 시절 그에게도 남 모르는 고충이 있었다. 다음 아년 연습실 때문이었다. 창립 초기 회원들과 함께 ‘손을 맞춰볼’ 연습실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것이다. 다행히 광주경신교회의 배려로 예배당 지하실에 공간을 마련했지만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어 아쉬운 실정이다.

전용 연습실이 없는 서러움을 겪는 건 전남대 의과대학 음악 동아리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957년 창설된 전남대 의대 동아리는 50주년 기념 연주회(2008년)를 개최한 연륜 있는 단체이지만 올해 마땅한 연습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적잖이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한때 광주

를 위한 갤러리나 공연장은 많지만 연극이나 음악, 미술 등 시민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연습공간이 없는 데 착안한 것이다. 1년 365일 문을 여는 이 예술촌은 오케스트라, 연극, 밴드 등 장르에 맞는 스튜디오와 장비가 비치돼 이용자들은 ‘몸만 오면’ 된다. 시민예술촌 덕분에 가나자와시는 일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문화도시로 꼽히고 있다.

한 도시의 문화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는 다양하다. 풍부한 인프라, 예술가의 창작활동, 수준높은 콘텐트는 문화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필요할 때 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화생태계가 빈약하다면 ‘주인 없는’ 문화도시일 뿐이다. 지역의 수많은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문화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예술가’들이 행복한 도시가 진정한 문화수도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올여름 나도 영화배우”... 청소년 연기·영화 제작스쿨

11~14일 북구청청소년수련관

올 여름 단편영화의 감독과 배우가 돼보자.

광주 북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8월11~14일 북구청청소년수련관과 북구 지역 학교에서 ‘청소년 연기·영화 제작스쿨’을 진행한다.

강사는 영화 ‘편지’, ‘블루’, ‘두 여자 이야기’ 등으로 대중상 신인감독상, 각본상 등을 수상한 이정국(세종대 영화

예술학과 교수) 감독이다.

영화제작 기본과 생활연기 기법,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팀별로 시나리오 회의를 진행하고, 단편영화를 직접 제작하게 된다. 시사회는 9월13일 열린다.

대상은 중·고등학생으로 8월7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bg1388@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268-138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가입문의 1855-0000



헬로tv, 세계 최초 UHD 방송 시작!

헬로tv UHD 방송 가입하시고 24시간 초고화질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세요!

-  **24시간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 ch.1)에서 다양한 UHD 콘텐츠를 시청가능
-  **UHD VOD 시청**
초고화질의 UHD 콘텐츠를 VOD로도 시청가능
-  **16만 편의 영화·드라마 VOD**
국내 최대 VOD콘텐츠를 보유한 헬로tv와 동일하게
-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삼성UHD TV에서 스마트TV앱만 설치하면 셋톱박스 없이 시청가능

* 2014년에 가입하시면 가입 후 1년간 UHD 이용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헬로tv UHD 상품은 '14년 3월 이후에 출시한 삼성의 UHD 스마트TV에만 지원됩니다. '14년 3월 이전 출시 상품 구매자께서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14년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청가능하오니 이 부분은 삼성전자에 문의주세요. (삼성전자 고객센터 : 1588-3366)



헬로tv UHD 방송이란? Full HD 보다 4배 이상 화질이 좋은 초고화질 방송 서비스

www.cjhellovision.com